

아소 신사의 2 가지 역할

분화를 막고 결실을 풍요롭게 하다

아소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과 제례에는 2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소산의 분화를 막는 것, 두 번째는 풍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산 분화를 막기 위해 매년 6 월 초순에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화구 진혼제(火口鎮祭, 화구를 진정시키는 의식)'를 지냅니다. 신관들은 가장 큰 분화구 가장자리에 다가가 축사를 읊고, 고헤이(흰 종이 장식이 달린 신장대) 3 개를 분화구에 던져 넣습니다(3 개의 신장대는 화산의 주요한 3 신인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健磐龍命)와 그의 아내 아소쓰히메노미코토(阿蘇都比咩命), 그리고 두 사람의 손자인 히코미코노카미(彦御子神)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화산 분화보다 수확기가 더 규칙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신사에서는 분화구 진혼제보다도 벼농사와 관련된 의식과 축제를 더 많이 거행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축제는 계절 주기에 맞춰 진행됩니다. 봄은 모내기 시기입니다. 여름은 벼가 자라는 때이지만, 강우량의 과다나 과소, 폭염,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맞아 풍년을 이루어준 신들께 감사제를 올립니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축제가 가을에 행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맞춰 아소 신사에서는 3 월에 띠로 만든 횃불을 휘두르는 '히후리신지(쥐불놀이)' 행사를 합니다. 신사의 12 제신으로 꼽히는 구니쓰노미코토와 그의 아내(지역의 다른 신사에서 가져온 신목 가지로 이를 나타냄)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두 신의 혼인이 풍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7 월 말에 열리는 온다 마쓰리의 목적도 풍년 기원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벼가 자라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신사의 제신들을 4 대의 신여(가마)에 태우고 약 5km 를 지나며, 논밭을 둘러봅니다. 행렬은 말을 탄 신직들의 뒤를 따르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흰옷차림을 한 '우나리'라 불리는 14 명의 여성들이 신들에게 바칠 음식을 머리에 이고 운반합니다. 그 뒤를 이어어 남자, 여자, 황소 인형 머리를 끝에 단 막대를 든 지역소년 3 명이 따릅니다. 이 3 개의 인형 한 세트는 노동 생산력을 표현합니다. 관객들은 신여(가마)에 이삭이 달린 벼를 던집니다. 이때 던진 벼이삭이 신여(가마) 지붕에 많이 붙을수록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9월 하순에는 쌀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다노미사이(벼 수확 감사제)’가 열립니다. 하궁 참배길에서는 신사의 신들에게 야부사메(유적마)가 봉납됩니다. 야부사메란 질주하는 말 위에서 화살을 과녁에 쏘는 일본의 전통무술입니다. 칼데라에 있는 아소 신사의 분사에서는 강풍과 서리를 방지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농업 목적을 가진 독자적인 소규모의 제례가 열립니다.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아소의 농경 제사는 1982년에 문화청으로부터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